

# 대학중도탈락률 분석을 통한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의 필요성

김대석(金大石)\*

홍후조(洪厚祚)\*\*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대학 전공 공부에 필요한 고교 선수교과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요구한 모집단위와 요구하지 않는 모집단위의 대학 중도탈락률 및 자퇴율(이하 중도탈락률) 차이를 분석하여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요구여부에 따른 대학 중도탈락률 차이분석에서, 중도탈락관련 다른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고교 교육과정,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 및 대학 전공이 연계된 경우 일관되게 낮은 대학 중도탈락률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대학의 중도탈락률을 줄이고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전공이 연계되게 공부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입학 때부터 전공 적응도가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며, 고교 교육과정부터 희망 대학전공과 관련된 고교 선수 교과목이 적성에 맞아 꾸준히 공부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및 대학 교육과정이 연계되어야 한다. 삼자가 연계된다면, 고교 때부터 대학전공과 관련된 고교 선수 교과목이 적성에 맞아 공부한 학생은 대학에 가서도 중도탈락하지 않고 잘 적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어: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 대학 중도탈락률, 대학 전공 관련 고교 선수 교과목, 교과 학업 적성, 대학수학능력시험

\* 제1저자,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연구교수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문·이과 중심의 현재의 고교 교육과정은 고교 졸업자의 10%가 대학에 진학하던 1960년대 제2차 교육과정에서 유래한 이후(강익수, 2009: 118; 유봉호, 1992: 332-334) 계속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84.9%가 진학하는 4년제 대학에는 3,500여개, 전문대학에는 2,500여개의 학과와 전공이 있다(2009년 교육통계연보). 문·이과로 양분된 고교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대학입시도 경직되어 있다. 유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비슷한 결과물을 제출하다 보니 전공 관련 교과목에 보다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기보다 국어·영어·수학 및 총점 중심으로 입학사정을 하고 있다. 모집단위의 학문적 계통과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영수와 총점을 선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높은 중도탈락률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전공 적응도 높은 학생을 선발하기보다 전공과 무관한 교과목을 학생이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모집단위의 학문적 특성과 무관하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 가 또는 나 중 임의선택을 허용하고, 탐구영역의 사회 또는 과학 또는 직업 중 임의선택을 허용하면서 총점만 높으면 받아들이고 있다. 수리 가나, 탐구의 사회·과학·직업 중 하나를 사전에 지정요구하기보다 대학전공과 무관한 영역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전공공부와 연계되지 못하는 학생생활기록부 교차지원도 허용되고 있다. 전공과 관련된 학생생활기록부 교과목이 있지만 점수가 높으면 무관한 과목도 받아들이고 전 과목 총점으로 선발하고 있다(홍후조·김대석·박혜림, 2010).

문·이과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 모집단위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국영수, 총점 위주의 대학입시 속에서 학생은 희망하는 대학전공과 무관한 교과목을 고교 교육과정에서 공부하고, 적성보다 총점을 우선 고려하여 대학을 지원한다. 자연히 대학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은 학생이 선발되고 대학 중도탈락의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공 부적응으로 중도탈락하는 문제는 입학자원 감소와 더불어 대학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대학은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재학생의 중도탈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학생보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 상담, 장학금 지원, 시설 개선 등의 노력을 하지만, 이런 방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전공 적응도를 높이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학생보유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안은 대학 입학 때부터 전공 적응도가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대학전공 적응도가 높은 학생이란 국영수 점수나 총점이 아닌, 학업적 진로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 관련 교과목이 적성에 맞는 학생으로, 고교 교육과정부터 해당 교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한 학생은 대학 전공 적응도가 높고 중도탈락의 개연성이 적다.

반면, 대학전공과 무관한 교과목을 공부하고, 국영수 및 총점 위주의 대학입시로 선발된 학생은 낮은 전공 적응도로 대학을 중도탈락할 가능성 높다.

본 연구는 이를 고교-대학 교육과정의 단절로 인한 대학 중도탈락으로 명명한다. 대학전공과 관련이 적고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고교 교육과정에서 하는 것은 고교-대학 교육과정의 불일치이다. 이러한 문제상황은 대학 중도탈락이 고교-대학 교육과정의 연계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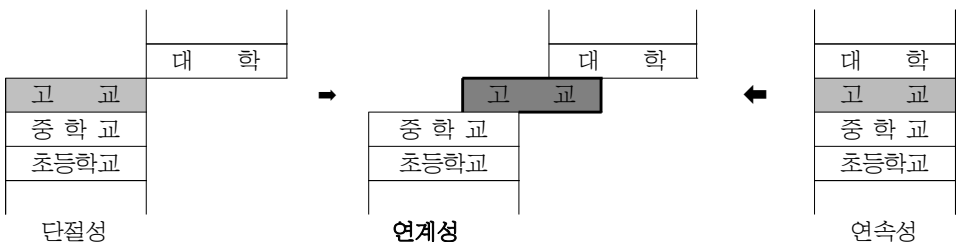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대학 중도탈락률을 분석하여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의 필요성을 실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전공과 관련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을 요구한 모집단위와 요구하지 않는 모집단위의 대학 중도탈락률 및 자퇴율 차이를 계열별로 분석함으로써 고교-대학 교육과정의 연계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주장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1)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의 개념

고교와 대학 교육과정의 연계에서 ‘연계’(連繫)는 영어의 ‘articulation’에 해당된다. articulation은 분절, 연결 마디라는 뜻으로, 본래 유기적으로 다른 것과 접속된 연속면과 동시에 자타를 구분하는 단절면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포함한다(정광희 외, 2004: 22). 교육과정 조직에서 연계성은 교육과정의 횡적 통합과 종적 계열성 사이에 학제나 교과 편제 등으로 생기는 결절·중복·비약·후퇴·누락 등이 없도록 부드럽게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박도순·홍후조, 2006: 198).

고교와 대학 교육과정에 연계를 적용하면 양자가 서로 구분되는 단절면과 접속되는 연속면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것이다. 고교와 대학은 각각 다른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두 기능은 상호 연결되는 것이어서 이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적성과 학업적 진로를 반영한 고교 교육과정이 대학으로 이어져야 한다. 고교-대학 교육과정의 연계는 양자가 학제 등의 차이로 인한 결절·중복·비약·후퇴·누락 등이 없도록 적성과 희망전공을 고려하여 부드러운 연속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고교와 대학 교육과정 연계의 개념

연계의 여러 방법 중 본 연구에서의 연계는 학생들의 서로 다른 적성과 학업진로 요구를 받아들여 대학 전공계열을 중심으로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즉, 대학 전공 관련 선수학습을 고려하여 고교의 과정을 설계하되, 과정을 구성하는 교과목의 범위와 수준은 학생의 적성과 학업진로에 따라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의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시 및 대학 교육은 서로 단절되어 있다. 대학진학계열과 전공 및 입학정원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고교 교육과정은 문·이과로 고정되어 있다. 학급 수 기준으로 인문·사회 및 자연·공학과정이 전체의 98.0%인데 반해 예체능, 직업 및 기타과정은 2.0%에 불과하다. 학생 수 기준으로도 인문·사회과정과 자연·공학과정이 전체의 98.6%를 차지하는 반면 예체능 등 기타과정은 1.4%에 지나지 않는다(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연보 2009). 또한 자연과학·공학·의약 보건의 계열의 입학정원이 41.5%이고 고교 이과과정 학생 수가 38.4%임에 반해, 수리 가형 응시생은 23.5%에 불과하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직업탐구영역도 동일계라고 할 수 있는 공학계열보다 오히려 인문사회계열에서 더 많이 활용되는 있다.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개설되지 않는 아랍어가 대수능 제2외국어 및 한문영역 전체 응시자의 42.3%에 달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들은 모두 고교 교육과정-대학입시-대학 전공공부가 연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삼자의 단절로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가 분리되어 고등학교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교 교육과정-대학입시-대학 전공공부의 연계의 필요성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었다(강영혜 외, 2006; 계승혁, 2002; 김미숙·이수정·김성훈, 2008; 김재춘, 2007; 양승실, 2003; 홍후조, 2005a).

## 2) 대학 중도탈락의 개념 및 원인

### (1) 중도탈락의 개념

대학 중도탈락은 학생이 특정기간에 수학(受學)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업지속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정태화, 2002), 대학 재학 중에 학생이 개인적 또는 대학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여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Garrison, 1985; 노혜란, 최미나, 2008: 91에서 재인용). 중도탈락은 학생변동 사항의 일부이다. 대학 학칙에서 규정하는 학생변동 사항은 휴학, 퇴학, 제적, 복학, 재입학, 편입학, 전과 등이다. 중도탈락은 휴학을 포함한 퇴학, 제적에 해당된다(김수연, 2006).

Morrow(1986; 김용남, 2008: 11에서 재인용)는 중단탈락을 다섯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째, 바람직하지 않는 학생으로 판단되어 밀려나는 경우, 둘째, 학교와 관련을 원하지 않는 비제휴형, 셋째, 학교 교육과정을 끝내지 못하는 유형, 넷째, 가정에서의 사회화 요구와 학교의 요구가 불일치하여 중퇴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결국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이다.

Miller(1964; 배영태, 2003: 10에서 재인용)는 중도탈락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째, 지능이 낮거나 정서불안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 둘째는 학교를 부정적이며 싫고 괴로운 곳으로 보고 교육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는 학생, 셋째, 학생은 졸업하기를 원하나 학교가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여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 넷째, 학교의 생활방식, 교육과정, 공부 등이 학생의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다. 본 연구는 중도탈락 사항 중 휴학을 제외한 자퇴, 제적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Miller의 네 번째 중도탈락 유형에 초점을 두었다.

## (2) 대학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먼저 고교 단계의 변인을 살펴보면, 고교 교육과정의 성적, 이수한 교과목,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등은 대학 중도탈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Pascarella & Chapman, 1983; Pascarella, Duby & Iversn, 1983; Williamson & Creamer, 1988; 김재웅, 1992: 20에서 재인용), 적성, 흥미 등 고교 단계의 개인적 변인과 대학 단계 변인은 상호작용하여 대학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into, 1988; 오영재 2005: 333에서 재인용).

고교 교육과정의 대표적 결과물은 학생부이다. 여러 연구에서 대학 중도탈락의 한 원인으로 고교 교육과정 성적이 제시되고 있다(김재웅, 1992: 18-19; Des Jardins, Ahlburg & McCal, 1999; Elkins, Braxton & James, 2000, 오영재, 2005: 332-333에서 재인용; Pantages & Creedon, 1978; 김재웅, 1991: 196에서 재인용; Grubb, 2003: 200-206). 특히 전공과 관련하여 고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대학 중도탈락의 중요한 예측변인이었다(Otto, 1976; Summerskill, 1962; Spady, 1970; 김재웅, 1991: 196 및 1992: 21에서 재인용).

고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는 대학 성적 및 전공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녔으며(강상진, 2001; 박성수, 2007; 이종승, 2000; 지은림, 2001; 허명희·전성연, 1996; 홍후조 외, 2004), 미국의 경우 고교 성적이 SAT보다 대학 성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njar·Blew, 1981; 김미숙 외, 2008: 11에서 재인용). 또한 고교 선수학습이 부족한 학생의 전공 기초학습능력이 낮았으며 고교 선수교과목을 이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대학 성적이 좋았다(이보경·장수철, 2008). 불충분한 고교 선수학습은 전공공부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학과 적응 및 중도탈락에 영향을 주었다(김성경, 2003; 배진화, 2003; Haines, Norris & Kashy, 1996).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의 대학 졸업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높았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6). 결론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학업진로와 연계하여 충분히 준비할수록 대학 전공 선택에 대해 확신이 강하고 전공 적응도와 만족도가 높았으며 대학 중도탈락도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강승호, 2010; Blaker et al, 2003: 5-6; 오영재, 2005:

335에서 재인용).

대학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입시 단계의 변인을 살펴보면, 국영수 및 총점위주의 대학입시에서 학생은 적성보다 대학서열·명성·인기도·합격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였으며(최명선·강지희, 2008: 212-213) 이들의 대학 적응도와 만족도는 낮았고(구윤희, 2007: 24-40) 자퇴율은 높았다(김성식, 2008: 231-234). 부적절한 대학입학 준비과정은 대학 학업실패의 원인이기도 하였다(허철수, 1989: 131-136). 결국 대학전공과 관련 있는 고교 선수교과목이 적성에 맞아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 중도탈락 없이 대학에 적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단계 변인은 전공 적성이었다. 즉, 전공과 적성의 일치여부가 다른 항목보다 대학 자퇴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강승호, 2010: 39-45; 손창수, 2009: 43; 최명선·강지희, 2008: 212; 이영애, 2006: 97; 변형민, 2001: 38). 대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전공공부와 적성문제이었으며(김성경, 2003; 서강대 학생생활상담 연구, 2002; 서울대 대학생생활문화원, 2001; 서울대 사회학과, 1992; 서은희, 2002: 27에서 재인용; 숙명대 학생생활상담소, 2008; 이은희, 2004; 홍지연, 2004), 자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학생과 고려한 학생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변인도 전공과 적성의 부합도였다(노혜란, 최미나, 2008: 96-103). 전공 적성은 학과 만족도 및 적응과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었다(강혜원, 1998: 91-96). 결국, 적성과 전공의 불일치로 학생이 받는 스트레스가 학과 만족도 및 전공 흥미도를 낮추어 중도탈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강승호, 2010: 39-45; 권균, 1991: 237; 박희민, 2009: 59; 한덕웅 외, 1992: 451-455; Tinto, 1988: 441-443, 오영재 2005: 333에서 재인용).

선행연구를 통하여 고교 단계의 변인이 대학 중도탈락까지 이어지며 적성, 흥미 및 고교 선수학습이 중도탈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적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고교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변인이다. 따라서 학업진로 및 적성에 맞는 공부를 고교 교육과정 동안 충분히 한 학생을 타당한 대학입시를 거쳐 선발한다면, 이들은 높은 전공 적응도를 유지하면서 중도탈락 없이 대학에 적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 측면에서 전공과 관련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을 요구한 모집단위와 비요구 모집단위의 대학 중도탈락률 및 자퇴율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중도탈락률의 평균차이가 계열별 및 영역별로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연구문제로서 본 연구는

대학전공과 관련되는 대수능 영역을 요구한 모집단위의 대학 중도탈락률·및 자퇴율이 비요구 모집단위 보다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대학알리미 및 대교협 대입전형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 2. 연구대상 및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알리미 자료를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대학알리미 자료는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대학정보공시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공개하고 있다. 모든 대학이 매년 4월 1일(또는 10월 1일)자로 자료를 조사하여 입력하며 통상 1-2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다. 연구대상은 고등교육기관 중 4년제 대학이다.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기타의 대학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사학위 과정상의 중도탈락 학생이 대상이므로 석사이상의 대학원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대학 전공계열은 6개 계열로 분류하였으며 분류기준은 대학교육협의회의 7개 계열분류(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약·보건, 사범, 예체능, 기타)를 준용하되, 인문사회를 인문, 외국어 및 국제, 상경, 사회(일반)의 4개로 세부 분류하여 총 10개에서 의약·보건, 예체능, 사범계열을 제외한 6개 계열의 모집단위를 최종 분석하였다. 의약 및 보건, 예체능, 사범계열의 모집단위를 제외한 이유로 의약 및 보건계열은 계열의 특성상 자격증 취득이 중도탈락 및 자퇴율을 왜곡시켜서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즉, 의학·보건계열은 계열의 특성상 과정이수로 졸업해야만 자격·면허를 취득하므로 중도탈락률이 매우 낮고, 해당 학과도 많지 않아서 표본크기가 작은 이유로 제외되었다. 예체능계열은 계열 특성상 다른 계열에 비하여 중도탈락률이 현저히 높아 계열 간 비교의 어려움으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범계열은 수학교육과나 과학교육과처럼 문·이과의 학문적 특성을 가진 모집단위가 많아 역시 해석상 어려움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중도탈락률 및 자퇴율 산출의 기준(분모)인 재적(在籍)학생 수는 재학생수와 휴학생수를 합한 수이며 2008년 4월 1일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도탈락률이며 다른 하나는 자퇴율이다. 양자의 구분기준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알리미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였다. 먼저 중도탈락률 분석에서 중도탈락 학생은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말까지 표본 4년제 대학에서 제적(除籍)된 학생 수이다. 제적에는 미등록 제적, 미복학 제적, 자퇴 제적, 학사경고 누적제적, 학생활동으로 인한 제적, 유급제적, 재학연한 초과제적, 기타의 제적을 포함한다. 중도탈락률 산출공식은 '중도탈락 제적학생 수 / 재적학생 수'이다.

다른 종속변인인 자퇴율에서 자퇴학생은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말까지 자퇴제적한

학생이며 미등록 제적, 미복학 제적,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 등이 제외된 것이다. 자퇴율 산출의 기준(분모)인 재적학생은 역시 2008년 4월 1일 기준 현재 재학생수와 휴학생 수의 합이며 자퇴율 산출공식은 '자퇴 재적학생 수 / 재적학생 수'이다. 표본의 구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표본의 배경 변인(단위: 명, 개, %)

| 대학   | 설립 유형 | 국공립대             |              |                  |             |                  |            |                  | 사립대         |                  |            |                   |            |                  |            | 계            |            |              |
|------|-------|------------------|--------------|------------------|-------------|------------------|------------|------------------|-------------|------------------|------------|-------------------|------------|------------------|------------|--------------|------------|--------------|
|      |       | 28(19.7)         |              |                  |             |                  |            |                  | 114(80.3)   |                  |            |                   |            |                  |            | 142(100)     |            |              |
| 대학   | 소재지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계            |
|      |       | 7<br>(4.9)       | 21<br>(14.8) | 7<br>(4.9)       | 12<br>(8.5) | 5<br>(3.5)       | 2<br>(1.4) | 6<br>(4.2)       | 13<br>(9.2) | 30<br>(21.1)     | 1<br>(0.7) | 4<br>(2.8)        | 6<br>(4.2) | 4<br>(2.8)       | 2<br>(1.4) | 16<br>(11.3) | 6<br>(4.2) | 142<br>(100) |
| 모집단위 | 계열    | 인문               |              | 외국어국제            |             | 상경               |            | 사회(일반)           |             | 자연과학             |            | 공학                |            | 계                |            |              |            |              |
|      |       | 80 (8.9)         |              | 140(15.6)        |             | 98(10.9)         |            | 131(14.6)        |             | 195(21.7)        |            | 253(28.2)         |            | 897(100)         |            |              |            |              |
| 재적학생 | 계열    | 17,801<br>( 5.5) |              | 37,426<br>(11.5) |             | 54,384<br>(16.8) |            | 40,815<br>(12.6) |             | 50,531<br>(15.6) |            | 123,430<br>(38.1) |            | 324,387<br>(100) |            |              |            |              |
| 중도탈락 | 학생수   | 571( 4.9)        |              | 1,384(11.9)      |             | 1,875(16.2)      |            | 1,288(11.1)      |             | 1,893(16.3)      |            | 4,592(39.6)       |            | 11,603           |            |              |            |              |
|      | 탈락률*  | 3.6              |              | 3.9              |             | 4.3              |            | 3.0              |             | 4.0              |            | 3.8               |            | -                |            |              |            |              |
| 자퇴   | 학생수   | 301( 4.6)        |              | 793(12.1)        |             | 959(14.7)        |            | 739(11.3)        |             | 1,200(18.4)      |            | 2,535(38.8)       |            | 6,527            |            |              |            |              |
|      | 자퇴율*  | 2.1              |              | 2.3              |             | 2.4              |            | 1.8              |             | 2.7              |            | 2.2               |            | -                |            |              |            |              |

\* 계열별 중도탈락률(자퇴율) 평균임. \*\* ( )는 %임.

본 연구는 대학 및 모집단위의 명성을 통제한 후 중도탈락률 및 자퇴율 차이를 분석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대학 및 모집단위의 명성이 중도탈락과 자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명성을 통제하고자 입학난이도 기준으로 표본을 분류한 후, 대수능 요구기준 중도탈락률 및 자퇴율 차이가 계열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입학난이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학교현장에서 진학지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학지원 배치표를 활용하였다. 구체적 구분기준은 많이 사용되는 대학입학 수능배치표 2종을 평균하였으며 수능원점수(400점 만점) 기준으로 모집단위를 상중하로 분류한 후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은 표본 수가 적은 관계로 제외하고 중위등급 897개 모집단위를 분석하였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요구여부에 따른 대학 중도탈락 및 자퇴 분석에서 중도탈락률·자퇴율 차이는 지정요구와 비(非)지정요구의 차이이다. 대수능 언어영역의 지정요구는 언



어점수를 제출할 것을 지정요구하는 경우이다. 반면 언어영역의 비지정요구는 언어점수를 제출할 것을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는 아니다.

인문·국제·상경·사회계열에서 대수능 수리영역 비요구는 수리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와 영역선택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수리영역 요구는 수리 나를 지정요구한 경우와 수리 가 또는 나 중 하나의 선택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이들 계열에서 수리 가 또는 나 중 하나를 선택하여도 대부분 '나'를 택하며, 또한 '가'를 선택하더라도 '가'는 '나'를 포함한 더 높은 수준과 범위의 과점 이수율 의미하므로 수리 요구에 포함된다.

자연과학·공학에서 비요구는 수리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와 가 또는 나 중 하나의 선택을 허용하는 경우 및 영역선택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수리 '나'는 '가'보다 낮은 수준과 범위의 과점율을 이수한 것을 의미하므로 가 또는 나 중 선택 허용은 수리 가 지정요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에서 수리요구는 가를 지정요구한 경우이다. 외국어영역의 지정요구는 외국어점수를 제출할 것을 지정요구한 경우이고 비지정요구는 외국어점수를 제출할 것을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는 아니다.

수능 영역별 활용현황은 2009년 정시에 일반전형을 실시한 142개 4년제 대학의 수능활용현황을 이용하였으며 출처는 대학교육협의회의 2009년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 자료집이다. 본 연구에서 수능의 탐구영역은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탐구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와 달리 영역 내 많은 교과가 있고 학문적 성격이 매우 이질적이어서 하나의 영역으로 집약하는 것이 무리이고 계열별로 비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탐구영역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계열별 중도탈락률과 자퇴율 차이를 t검증하였다. 결과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의 기초 통계량을 중심으로 계열별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분석도구로 SPSS와 엑셀을 활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요구여부에 따른 대학 중도탈락률 차이

중위등급 입학난이도를 가진 모집단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요구여부에 의한 중도탈락률 차이를 분석하고자 200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일반전형을 실시한 모집단위의 중도탈락률을 조사하였다.

&lt;표 2&gt; 대학수학능력시험 요구기준 중도탈락률 차이(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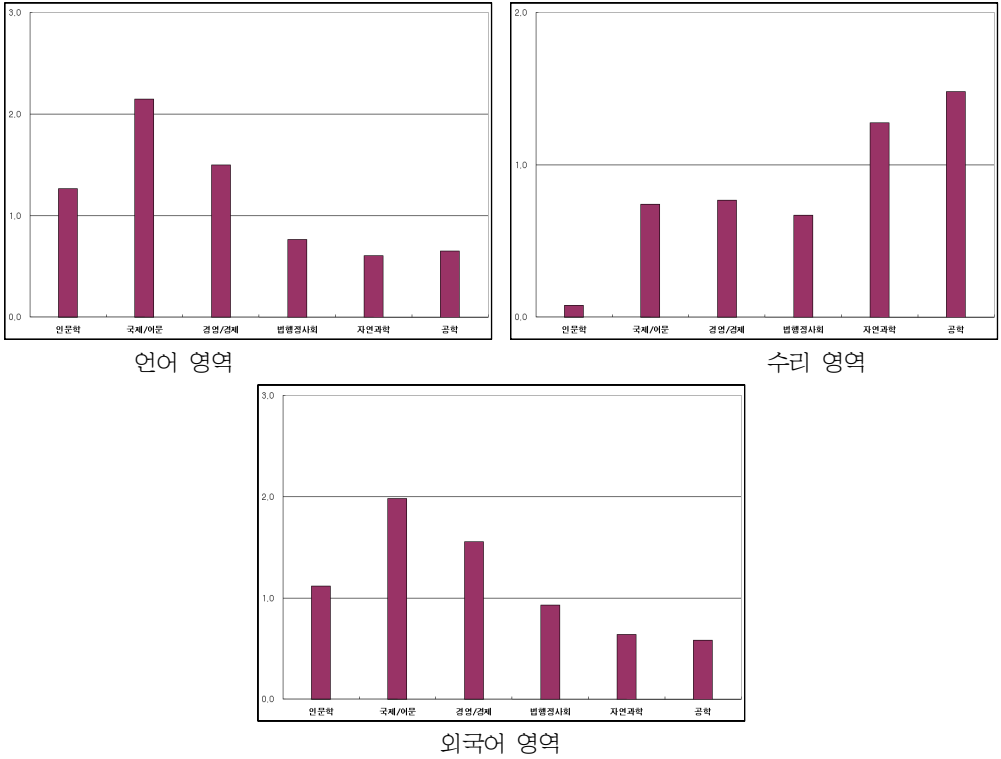
| 계열 \ 수능 영역    | 언어              |                |                | 수리               |                |                | 외국어              |                |                |                  |
|---------------|-----------------|----------------|----------------|------------------|----------------|----------------|------------------|----------------|----------------|------------------|
|               | 비지정요구<br>(표준편차) | 지정요구<br>(표준편차) | 평균차이<br>(t값)   | 비지정요구<br>(표준편차)  | 지정요구<br>(표준편차) | 평균차이<br>(t값)   | 비지정요구<br>(표준편차)  | 지정요구<br>(표준편차) | 평균차이<br>(t값)   |                  |
| 인문            | 중도탈락률           | 4.78<br>(1.60) | 3.51<br>(1.85) | 1.27<br>(1.67)   | 3.64<br>(1.58) | 3.56<br>(2.19) | .08<br>(.18)     | 4.67<br>(1.91) | 3.55<br>(1.85) | 1.12<br>(1.18)   |
|               | 모집단위 수          | 6              | 74             |                  | 46             | 34             |                  | 4              | 76             |                  |
| 외국<br>어<br>국제 | 중도탈락률           | 5.87<br>(3.82) | 3.72<br>(2.17) | 2.15<br>(3.03**) | 4.21<br>(2.42) | 3.47<br>(2.39) | .74<br>(1.64)    | 5.70<br>(3.72) | 3.72<br>(2.18) | 1.98<br>(2.89**) |
|               | 모집단위 수          | 12             | 128            |                  | 82             | 58             |                  | 13             | 127            |                  |
| 상경            | 중도탈락률           | 5.52<br>(2.86) | 4.02<br>(2.57) | 1.50<br>(2.19*)  | 4.58<br>(2.62) | 3.81<br>(2.73) | .77<br>(1.38)    | 5.53<br>(2.71) | 3.98<br>(2.59) | 1.56<br>(2.38*)  |
|               | 모집단위 수          | 18             | 80             |                  | 62             | 36             |                  | 20             | 78             |                  |
| 법<br>행정<br>사회 | 중도탈락률           | 3.62<br>(1.87) | 2.85<br>(1.63) | .77<br>(2.13*)   | 3.27<br>(1.84) | 2.60<br>(1.39) | .67<br>(1.89)    | 3.75<br>(1.87) | 2.82<br>(1.61) | .93<br>(2.32*)   |
|               | 모집단위 수          | 28             | 103            |                  | 81             | 50             |                  | 28             | 103            |                  |
| 자연<br>과학      | 중도탈락률           | 4.38<br>(2.15) | 3.77<br>(2.66) | .61<br>(1.63)    | 4.47<br>(2.22) | 3.20<br>(2.80) | 1.28<br>(3.44**) | 4.61<br>(1.87) | 3.97<br>(2.52) | .64<br>(.99)     |
|               | 모집단위 수          | 82             | 114            |                  | 128            | 64             |                  | 16             | 180            |                  |
| 공학            | 중도탈락률           | 4.20<br>(1.66) | 3.54<br>(2.32) | .65<br>(2.53*)   | 4.28<br>(2.02) | 2.80<br>(1.81) | 1.48<br>(5.51**) | 4.38<br>(.72)  | 3.79<br>(2.14) | .58<br>(1.18)    |
|               | 모집단위 수          | 114            | 139            |                  | 177            | 76             |                  | 19             | 234            |                  |

\* &lt; .05, \*\* &lt; .01

언어영역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비지정요구)와 요구하는 경우(지정요구)의 중도탈락률 차이는 인문학 1.27, 외국어 및 국제 2.15, 상경 1.50으로 차이가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법·행정·사회계열의 차이는 0.77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연과학계열의 중도탈락률 차이는 .61로 작고 통계적 차이도 없었다. 공학의 평균차이는 0.65로 작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리영역은 언어영역과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수리영역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와 요구하는 경우의 중도탈락률 차이는 인문학 0.08, 외국어 및 국제 0.74, 상경 0.77, 법·행정·사회 0.67로 차이가 작고 통계적 차이도 없었다. 반면 자연과학계열은 1.28, 공학은 1.48로 차이가 컸으며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났다.

외국어영역에서 중도탈락률 차이는 인문학이 1.12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외국어 및 국제(1.98), 상경(1.56)계열은 차이가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법·행정·사회계열의 차이는 0.9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연과학계열(0.64)과 공학(0.58)의 차이는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2]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기준 중도탈락률 차이(단위: %)

대수능 요구기준 중도탈락률 차이를 그래프로 확인하여 보았다. 언어영역은 인문·외국어·상경·법행정 계열에서 평균차이가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반면, 자연과학과 공학계열은 차이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수리영역은 인문·외국어·상경·법행정 계열의 차이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은 차이가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외국어영역에서 중도탈락률 차이는 인문사회계열이 크고 유의미하였으며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은 작고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특히 외국어 및 국제계열의 평균차이가 크고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의 차이가 작았다.

##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요구여부에 따른 대학 자퇴율 차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요구여부에 의한 자퇴율 평균차이를 분석하고자 2009학년도 정기모집에서 일반전형을 실시한 모집단위의 자퇴율을 조사하였다.

&lt;표 3&gt; 대학수학능력시험 요구기준 자퇴율 차이(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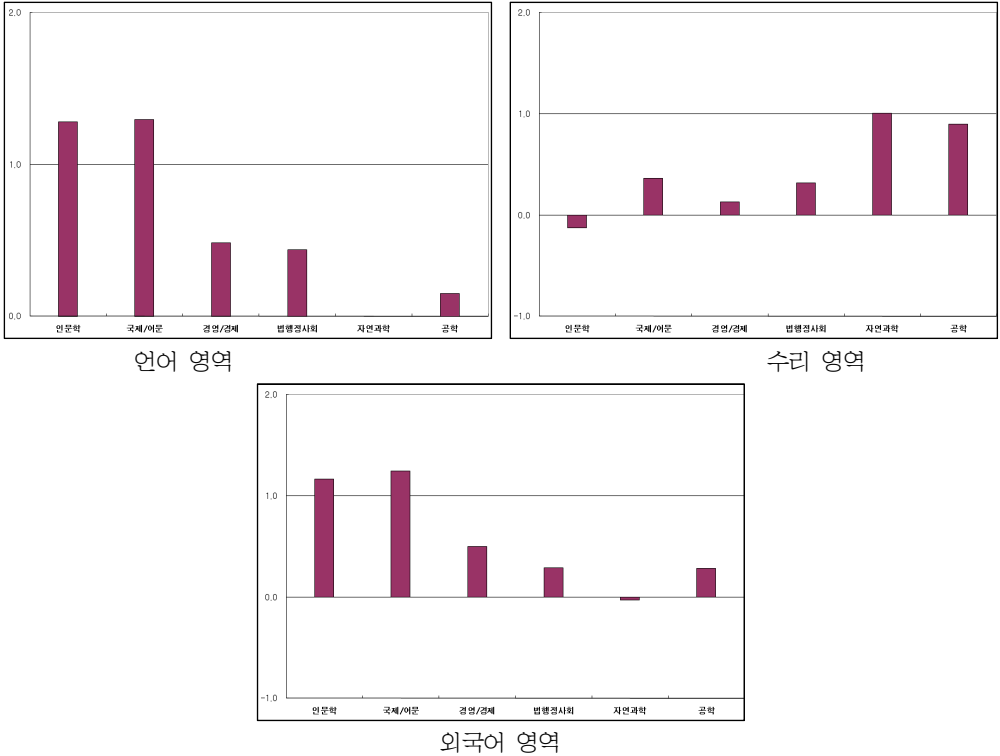
| 계열\수능<br>영역   | 언어              |                |                | 수리               |                |                | 외국어              |                |                |                  |
|---------------|-----------------|----------------|----------------|------------------|----------------|----------------|------------------|----------------|----------------|------------------|
|               | 비지정요구<br>(표준편차) | 지정요구<br>(표준편차) | 평균차이<br>(t값)   | 비지정요구<br>(표준편차)  | 지정요구<br>(표준편차) | 평균차이<br>(t값)   | 비지정요구<br>(표준편차)  | 지정요구<br>(표준편차) | 평균차이<br>(t값)   |                  |
| 인문            | 자퇴율             | 3.24<br>(1.38) | 1.96<br>(1.44) | 1.28<br>(2.10*)  | 2.00<br>(1.27) | 2.13<br>(1.71) | -0.12<br>(-0.37) | 3.16<br>(1.68) | 2.00<br>(1.44) | 1.17<br>(1.67)   |
|               | 모집단위<br>수       | 6              | 74             |                  | 46             | 34             |                  | 4              | 76             |                  |
| 외국<br>어<br>국제 | 자퇴율             | 3.51<br>(1.60) | 2.22<br>(1.69) | 1.30<br>(2.55*)  | 2.48<br>(1.60) | 2.11<br>(1.85) | 0.36<br>(1.25)   | 3.46<br>(1.55) | 2.21<br>(1.69) | 1.25<br>(2.62**) |
|               | 모집단위<br>수       | 12             | 128            |                  | 82             | 58             |                  | 13             | 127            |                  |
| 상경            | 자퇴율             | 2.79<br>(2.54) | 2.31<br>(2.07) | 0.48<br>(0.86)   | 2.44<br>(1.96) | 2.31<br>(2.50) | 0.13<br>(0.29)   | 2.79<br>(2.41) | 2.29<br>(2.10) | 0.50<br>(0.93)   |
|               | 모집단위<br>수       | 18             | 80             |                  | 62             | 36             |                  | 20             | 78             |                  |
| 법<br>행정<br>사회 | 자퇴율             | 2.18<br>(1.47) | 1.74<br>(1.19) | 0.44<br>(1.65)   | 1.96<br>(1.41) | 1.64<br>(0.96) | 0.32<br>(1.40)   | 2.06<br>(1.46) | 1.77<br>(1.20) | 0.29<br>(1.08)   |
|               | 모집단위<br>수       | 28             | 103            |                  | 81             | 50             |                  | 28             | 103            |                  |
| 자연<br>과학      | 자퇴율             | 2.70<br>(1.68) | 2.71<br>(2.32) | -0.01<br>(-0.03) | 3.05<br>(2.05) | 2.05<br>(2.02) | 1.00<br>(3.22**) | 2.68<br>(1.69) | 2.71<br>(2.11) | -0.03<br>(-0.05) |
|               | 모집단위<br>수       | 82             | 114            |                  | 128            | 64             |                  | 16             | 180            |                  |
| 공학            | 자퇴율             | 2.24<br>(1.40) | 2.09<br>(1.72) | 0.15<br>(0.74)   | 2.43<br>(1.42) | 1.53<br>(1.77) | 0.90<br>(4.27**) | 2.42<br>(1.00) | 2.13<br>(1.63) | 0.29<br>(0.76)   |
|               | 모집단위<br>수       | 114            | 139            |                  | 177            | 76             |                  | 19             | 234            |                  |

\* &lt; .05, \*\* &lt; .01

언어영역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와 요구하는 경우의 자퇴율 차이는 인문학 1.28, 외국어 및 국제 1.30으로 차이가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상경제열의 평균차이는 0.48로 유의하지 않았다. 법·행정·사회계열의 차이는 0.4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자연과학(-0.01)과 공학계열(0.15)은 차이가 작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리영역은 언어영역과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수리영역에서 비지정요구와 지정요구의 자퇴율 차이는 인문학 -0.12, 외국어 및 국제 0.36, 상경 0.13, 법·행정·사회 0.32로 차이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자연과학계열은 1.00, 공학은 0.90으로 평균차이가 컸으며 통계적으로 차이가 났다.

외국어영역의 자퇴율 평균차이는 인문학 1.17, 외국어 및 국제 1.25로 차이가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상경제열(0.50)과 법·행정·사회계열(0.29)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자연과학(-0.03)과 공학계열(0.29)은 차이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3]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기준 자퇴율 차이(단위: %)

자퇴율 차이를 그래프로 확인하였다. 언어영역은 인문 및 외국어·국제계열의 자퇴율 차이가 특히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반면 자연과학과 공학계열의 차이는 작고 통계적 차이도 없었다. 수리영역의 자퇴율 차이는 인문·외국어·상경·법행정 계열이 작고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반면 자연과학·공학 계열은 차이가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외국어영역은 인문학 및 외국어·국제계열 차이가 특히 컸으며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은 작고 통계적 차이도 나지 않았다.

대수능 점수 요구여부에 의한 대학 중도탈락률 및 자퇴율 평균차이 분석의 결과로 먼저 언어영역 요구여부에 의한 중도탈락률 및 자퇴율 차이가 인문사회계열에서 큰 것은, 고교 때 언어가 적성에 맞아 충실히 선수학습한 학생이 대입시에서 수능 언어가 지정요구된 모집단위에 입학한 후에도, 계속 언어가 많이 요구되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에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반면, 고교 때 언어가 적성에 맞지 않아 충실한 선수학습을 못한 학생이, 수능 언어를 지정요구하지 않은 인문사회계열 전공에 입학하였지만, 여전히 인문사회 전공의 학문적 특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자연과학, 공학계열에서 언어영역 기준 중도탈락률 및 자퇴율 차이가 작은 것은 이들 계열에서 언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고교 때 언어가 적성에 맞아 충실히 선수학습한 학생이나 그렇지 않는 학생이나 대학에 와서 별 차이 없이 적응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리영역의 중도탈락률·자퇴율 차이가 인문사회계열에서 작은 것은 이들 계열에서 수리가 많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고교 때 수리가 적성에 맞아 충실히 선수학습한 학생이나 그렇지 않는 학생이나 대학에 와서 별 차이 없이 적응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에서 수리영역 요구기준 중도탈락률·자퇴율 차이가 큰 것은, 고교 때 수리가 적성에 맞지 않아 수리 '나'만 공부한 학생이, 수리를 지정요구하지 않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모집단위에 입학하였지만, 여전히 이들 전공의 학문적 특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반면 고교 때 수리가 적성에 맞아 충실히 선수 학습한 학생은 대수능에서 수리영역을 지정요구한 모집단위에 입학한 후에 계속 수리를 많이 요구하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전공에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수능 외국어영역 요구여부에 의한 중도탈락률·자퇴율 차이가 외국어 및 국제계열에서 특히 큰 것은, 고교 때 외국어가 적성에 맞아 충실히 선수학습한 학생이 수능 외국어가 지정 요구된 모집단위에 입학한 후에도, 계속 외국어가 많이 요구되는 외국어·국제 전공에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반면, 고교 때 외국어가 적성에 맞지 않아 충실한 선수학습을 못한 학생이, 수능 외국어영역을 요구하지 않은 외국어·국제계열 모집단위에 입학하였지만, 여전히 전공의 학문적 특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자연과학, 공학계열에서 외국어영역 기준 중도탈락률·자퇴율 차이가 작은 것은 이들 전공에서 외국어는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고교 때 외국어가 적성에 맞아 충실히 선수 학습한 학생이나 그렇지 않는 학생이나 대학에 와서 별 차이 없이 적응함을 의미한다.

#### IV.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전공공부에 필요한 고교 선수교과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요구한 모집단위와 요구하지 않는 모집단위의 대학 중도탈락률 및 자퇴율(이하 중도탈락률)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교 때 대학 전공 관련 교과가 적성에 맞아 충실히 선수학습한 학생과 해당 교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 충실한 선수학습을 못한 학생 간에 대학 입학 후 중도탈락률에서 차이가 나며, 그 차이도 계열별 및 교과(영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 결과는 고교 교육과정,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 및 대학전공이 연계된 경우 일관되게 낮은 대학 중도탈락률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 중도탈락 문제가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 측면으로 접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 때부터 희망 대학전공과

관련된 고교 선수교과목이 적성에 맞아 충실히 공부한 학생은 대학입시에서 이를 지정요구하는 모집단위에 입학한 후에도 중도탈락 없이 적응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대학은 전공 관련 선수교과목의 종류, 분량(범위 및 수준)을 대학입시에서 사전에 지정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학생이 고교 때부터 자신의 적성과 학업진로에 맞는 공부를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에 가서도 중도탈락 없이 해당 전공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은 학생보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처음부터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전공이 연계되게 공부한 학생을 선발해야 할 것이다. 대학 중도탈락은 학생에게 기회비용 같은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자퇴로 야기되는 시간의 지연은 직업획득에 이르는 경제적 보상의 지연을 의미한다. 대학 측면에서도 중도탈락은 대학의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많은 대학들이 재정과 직결되는 학생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상당, 장학금 지원, 시설개선 등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고교-대학 교육과정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런 식의 노력으로 전공 적응도를 높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유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안은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전공 적응도가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며, 이것은 고교 교육과정부터 전공과 관련된 고교 선수 교과목이 적성에 맞아 꾸준히 공부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는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 및 대학 전공이 연계된 경우 대학 중도탈락률이 일관되게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고교 때부터 대학전공과 관련된 고교 선수 교과목이 적성에 맞아 충실히 공부한 학생은 대학에 가서도 중도탈락하지 않고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는 학생의 학업 진로 및 적성 요구, 모집단위의 학문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대학 전공과 연계되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난이도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진로별로 개정되어야 한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방안에 의하면, 대수능을 난이도별로 A형과 B형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제시된 방안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업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난이도의 수능을 준비하도록 하는 획일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또한 진로 및 적성과 관련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은 축소되기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2014학년도부터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의 응시과목 수가 2과목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탐구영역이 고교-대학 교육과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면, 응시과목을 줄이기보다 교차지원 불허 등을 통하여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직업탐구영역은 동일 계인 공학계열에서 더 많이 활용되도록 지정요구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상진(2001). 대학입학 전형요소의 준거관련 타당도 추정방법 비교분석. **교육평가연구**, 14(1), 171-197.
- 강승호(2010).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중도탈락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교육평가연구**, 23(1), 29-53.
- 강영혜, 김미숙, 박소영, 이희숙, 김남결(2006). 교과특기자 육성교 시범운영사업평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강익수(2009).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혜원(1998). 학업에 대한 성패귀인, 자기효능 및 내적동기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2(2), 85-107.
- 계승혁(2002). 자연계 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저하에 따른 문제점과 대처 방안. 19회 수학교육 심포지엄 주제발표원고.
- 구윤희(2007). 대학생의 전공선택유형과 학업적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권균(1991). 대학에서의 중도퇴학 원인과 그 억제방안. **교육학연구**, 29(3), 235-249.
- 김미숙, 이수정, 김성훈(2008).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연구(V): 대입전형요소와 대학수학능력의 관계. 한국교육개발원.
- 김성경(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37.
- 김성식(2008).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학교이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대학선택요인과 대학생활 만족도 영향. **교육연구**, 35(1), 227-249.
- 김수연(2006).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타락 요인 분석. **한국교육**, 33(4), 33-62.
- 김용남(2008). 대학생의 학업중단 요인분석.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김재웅(1991). 미국 대학생 중도탈락: 개인, 사회구조, 대학의 상대적 중요성. **한국교육**, 18, 193-221.
- \_\_\_\_\_ (1992). 미국 대학생 중도탈락: 개인, 사회구조, 대학의 상대적 중요성. **교육행정학연구**, 10(1), 17-48.
- 김재춘(2007). 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연계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노혜란, 최미나(2008). 대학생의 중도탈락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안. **인적자원개발연구**, 11(1), 89-107.
- 박도순, 홍후조(2006).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문음사.



- 박성수(2007). 대학입학 전형요소와 대학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34(4), 27-56.
- 박희민(2009). 전문대학 학생 중도탈락 요인분석.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배영태(2003). 중고생의 중도탈락 인과모형 검증과 판별척도 개발.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배진화(2003). 고등학생들의 학교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변형민(2001). 전문대학 1학년생의 자퇴요인에 대한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부(2002). 2001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연구. 인간이해, 23, 143-169.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2001). 2001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
- 서은희(2002). 대학생의 인지양식과 전공선택 및 학업 적응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창수(2009).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경대학교 전자정보대학원.
-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2008). 2008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분석. 학생생활연구 31집.
- 양승실(2003). 대학입학제도의 운영 실상과 영향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오영재(2005). 대학간 학생이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1), 327-356.
- 유봉호(1992). **한국교육과정사 연구**. 교학연구사.
- 이보경, 장수철(2008). 고등학교 과학 심화선택과목 이수여부와 대학 과학 교과목의 학업성취도. **교육과정연구**, 26(2), 191-210.
- 이숙정, 유지현(2008).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2(3), 589-607.
- 이영애(2006). 대학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9(1), 95-104.
- 이은희(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25-48.
- 이종승(200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와 대안**. 황정규(편). 한국 교육평가의 쟁점과 대안(p.448). 교육과학사.
- 정광희, 이종재, 김홍원, 김정원, 조덕주, 함석동, 구리나, 이희숙(2004).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KEDI 8년 연구: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대입전형연구 -특별전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정태화(2002). 미국에서의 전문대학 학생보유 연구에 관한 시사점 분석: 재학생 감소 시기를 중심으로

로. **직업교육연구**, 21(2), 327-342.

지은림(2001). 대학전형의 다양화를 위한 전형자료의 예측타당도 분석. **교육평가연구**, 14(2), 155-172.

최명선, 강지희(2008). 대학생 중도탈락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5(7), 203-225.

한국교육개발원(200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2010). 대학정보공시지침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9).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

한덕웅, 전경구, 탁진국, 이창호, 이건호(1992). 대학생의 생활 부적응에 관한 연구: 불안, 우울 및 신체형 장애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92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허명희, 전성연(1996). 입학선발지표와 대학학업성취도의 관련성. **교육학연구**, 34(5), 299-310.

허철수(1989). 대학 및 학과 선택 결정과정과 학업적응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11, 129-150.

홍지연(2004).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홍후조(2005a). 대학 전공 학습을 위한 고교의 선수학습과목에 관한 대학생의 인식 조사 연구. **교육과정연구**, 23(3), 257-288.

홍후조, 김대석, 박혜림(2010). 대학 전공 공부에 필요한 계열별 고교 선수 교과목 분석. **교육방법연구**, 22(1), 221-242.

Grubb, W. N.(2003). The decline of community college transfer rates: evidence from 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2(2), 194-222.

Haines, M. E., Norris, M. P., & Kashy, D. A.(1996). The effects of depressed mood on academic performanc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s Development*, 37, 519-526.

U.S. Department of Education(2006). *The toolbox revisited: paths to degree completion from high school through college*.

\* 논문접수 2011년 11월 1일 / 1차 심사 2011년 11월 30일 / 게재승인 12월 15일

\* 김대석: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과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성, 교육과정평가이다.

\* E-mail: daesok@hotmail.com

\* 홍후조: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교육과정을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알기 쉬운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교육과정학 연구 50년' 등이 있다.

\* E-mail: educu@hanmail.net

## Abstract

## A Study on the College Drop-out Rates Based on Curriculum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Daeseok Kim\* Hoo-Jo Hong\*\*

This study examined 142 college drop-out rates from a point of view of curriculum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We examined the college drop-out rates difference between college prerequisite subjects are required in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nd not required, in order to claim the curriculum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In the study of the college drop-out rates difference between Korean is required in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nd not required, the dropout rates difference of liberal arts and social sciences was great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ropout rates difference of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 however, was minor and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Math shows contrary results. In the college dropout rates difference between Math is required in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nd not required, the dropout rates difference of liberal arts and social sciences was minor and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ropout rates difference of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 however, was great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llege drop-out rates difference between English is required in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nd not required, the dropout rates difference of international studies was great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ropout rates difference of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 studies, however, was minor and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 of the study is that when the students' high school courses consist in their college entrance test's subjects and college majors, their college dropout rate hit a record low. This means that college drop-out rates problem could be approached from a point of view of curriculum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We could predict that students study well in college without drop-out if they have studied well college preparatory course with interest and aptitude in high school.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it is needed to categorize high school's courses with college majors from a point of view of curriculum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Key words: curriculum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college drop-out rates, college prerequisite subjects, interest and aptitude for school subject

\* Visiting Scholar, Dept of EPIT, UGA

\*\* Professor, Dept. of Education, Korea Univ.